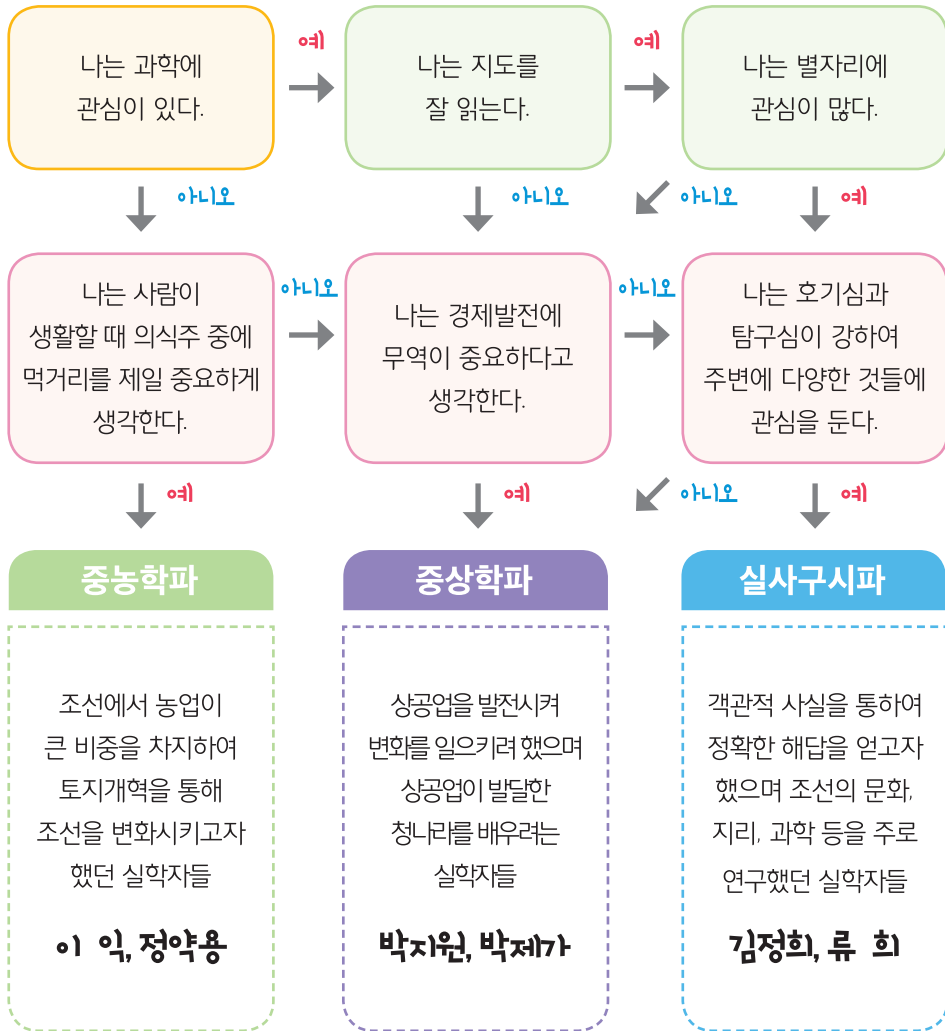


내가 실학자가 된다면?

'예' 나 '아니오' 를 따라가면서 어디에 속하는 실학자가 될지 알아보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용

박물관 속, 실학소풍



조선시대에 연행사는 한양(서울)에서 출발하여 개성, 평양, 의주를 지나 청나라의 심양, 산해관을 거쳐 수도인 북경에 다녀왔어요. 연행사를 통해 다양한 서양 문물이 조선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글 속에 있는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여 연행사길을 만들어 주세요!



조선시대는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중 사회개혁을 주장하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를 '실학자'라고 합니다.



다음의 실학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실학자들은 우리 문화와 사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진과 설명을 보고 박물관 안에서 이름을 찾아주세요!

우리 조선은 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에 대한 개혁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라는 책에서 '정전론'을 이야기 했어요. 토지를 9등분하여 백성에게 각각 경작하게 하고 중앙은 함께 경작하여 세금으로 바치는 방법이지요.



정약용

저는 청나라에 다녀 왔어요. 청나라에 가보니 과학기술이 접목된 공업과 다양한 물건을 사고파는 상업이 발달하였더군요. 그리고 청나라에 다녀와서 「」를 썼어요.

저처럼 청나라를 공부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자는 사람들을 라고 하지요.



박지원



이익이 40년동안 연구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백과사전식으로 과학에서부터 역사, 철학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지요.



신경준의 저술을 정리한 책이에요. 신경준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지리학자로서 '백두대간'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조선시대 '유금'이 만든 아라비아식 휴대용 천문시계로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었지요. 앞면은 주요한 별의 위치를 통해 시간을 알 수 있으며, 뒷면은 날짜와 1년 중 해의 길이를 측량해 볼 수 있어요.



보물 제85호로 우리나라 전체 모습을 지도로 표현했어요. 다양한 기호를 사용하여 정보력을 올리고, 축척 등을 이용하여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어요.